

## 2021 젊은건축가상 심사총평

1,2차에 나눠 심사를 하는 과정은 즐거웠다. 치열한 고민의 과정과 진지함을 보았고 한국사회의 단면을 짧은 시간에 볼 수 있었다. 1차 심사에서 세 방향의 작업 군으로 작업이 선정되었다. 시대성과 지역성이 반영된 작업과 작가의 개성이 뚜렷한 작업을 선별했다.

대다수의 작업들이 훌륭했고 선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젊은건축가상의 의미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토론이 있었다. 결론은 상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상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격려가 되어야 하고 시대의 지표를 열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으로 선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2021년 올해의 젊은건축가 수상자로 아파랏.체 건축사사무소의 이세웅, 최연웅, 구보 건축 조운희, 아키후드 건축사사무소 강우현, 강영진이 선정되었다.

### 아파랏.체 건축사사무소

불협화음, 낮 설음, 뻔뻔함의 서로 다름이 결합되어 새로운 풍경을 만든 작업이다. 그들의 다소 난해한 설명은 무대의 커튼과 같아서 내세우는 미학이 작품의 본질은 아니다. 그들은 지독히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서양어 사전에서 단어를 골라내어 구축하는 지적 게임을 한다.

재미있다. 한국 풍경에 어울릴 수도 있다. 익숙함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새롭다.

그들은 한국의 건축풍경에 새로운 서사를 열고 있는지도 모른다.

### 구보건축

건축가의 설명은 뚜렷했다. 건축보다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기웃거리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그녀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서툰 부분이 있지만 충분한 납득과 설명이 되었다.

수사가 제거된 현실 가능한 구축이 미적 관점으로 읽힐 수 있다면 이미 성공이다.

탄력적 적응력과 응용력도 갖추어 도그마가 제거된 유연성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장소의 현황과 현실의 한계를 직시하며 미적 변용을 갖춘 다소 위트와 여유도 갖추었다.

### 아키후드 건축사사무소

그들은 이미 프로다. 적은 예산과 주어진 여건을 능숙하게 다루고 그들에게 습득된 재료나 구법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각 작업들은 일관성과 능숙한 조형미도 갖추었다. 아키후드는 단면을 참 잘 그리는 건축가다. 상황과 목표가 뚜렷하다는 의미다. 많은 장점과 재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과에 기대가 된다.

K-POP에서 이제 K를 때야 하는 시대가 왔다. 한국의 상황은 더 이상 지역적이지 않다. 젊은건축가상은 미래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자화상을 만드는 희망에 주는 것이다.

세계에 발을 내딛는 한국의 건축가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2021 젊은건축가상 심사위원장 최 욱  
심사위원 김정임  
심사위원 민현준  
심사위원 김현섭  
심사위원 서재원